

# 사조그룹, 함평 육가공사업 발 뺐다

## 전남도와 760억 MOU 불구 사실상 포기

### 함평군민 “대기업이 지역 우롱하나” 분통

참치 원양어업 및 식품가공 전문회사인 사조그룹이 함평군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규모 도계 및 육가공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함평군과 지역민들은 “대기업이 지역민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0일 함평군과 사조그룹 등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청에서 주진우

회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안병호 함평군 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조그룹은 축산분야 총괄법인인 ㈜사조아그로를 설립해 함평군 학교면 일원 14만2000㎡ 부지에 2013년까지 760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5만㎡ 규모의 최신

도계설비와 계류장, 물류창고, 사료제조공장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함평군 측의 수차례 사업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사료제조공장을 설립한 이후 핵심사업인 도계 및 육가공 공장 설립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사조그룹 측이 MOU 자체는 유효하나 기업여력에 따라 추진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란 갑작스런 변수가 생

길수도 있어 차분하게 대처할 따름이고 더 나은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모 씨는 “사조그룹이 양육강식의 기업 논리만 앞세우는 것 같다”며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의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사조그룹과의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전남도와 함평군이 학교면 일원에 농식품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해 축산물 가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기자 hwang@

# 광주은행, 아이낳기 좋은 직장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영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진수회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이 광주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진대회서 대통령 표창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대회에는 전국 192개 기관이 참여하고,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16개 시·도의 지역예산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39개 기관이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은행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광주은행은 고용안정과 남녀평등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업문화 조성에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Home-Run Day)’ 운영, 예고 없는 회사 안하기 캠페인! 휴먼·비만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은행장과 함께 하는 조찬 데이트와 시네마데이트 등 광주은행만의 독창적 기업문화를 통해 자기계발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과 방송을 통한 ‘출산 장려 희망 프로젝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신 가능기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급호텔 부부숙박권을 지급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기진 은행장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의 출산친화적 기업문화 육성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뉴스 분석 사조그룹 함평 투자 포기 왜

# 신규투자 대신 나주 화인코리아 인수로 선회 화인코리아 임직원 각계호소...법원판단 주목

사조그룹의 함평 도계·육가공 사업 포기 배경에는 화인코리아 인수합병(M&A)에 있다는 분석이다. 나주의 닭·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면 굳이 함평에 도계·육가공 공장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0일 화인코리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지난해 12월 함평군 학교면 일원 14만2000㎡ 부지에 2013년까지 760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5만㎡ 규모의 최신 도계설비와 계류장, 물류창고, 사료제

조공장 등을 건립하기로 전남도·함평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00억원대 매출의 알짜기업 화인코리아를 인수해 추진하면서 사실상 함평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이 회생 절차를 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인코리아에 정몽정 대표이사는 “식품 대기업인 사조그룹이 회사를 헐값에 빼앗

으려 하고 있다”며 “위장 계열사 등을 동원해 금융기관의 담보채권을 사들여 화인코리아의 핵심시설인 오리가공 공장과 부화장 등을 경매 신청하는 등 회생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사조는 화인코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접근해 담보채권 등을 몰래 매입하거나 경영진에 회사를 넘겨라는 회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는 “담보채권자와 종업원, 협력업체 지원 대책 등이 빠져있

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재 유래 없는 영업이 되고 수출 증가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제의도 받은 상태여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만 해준다면 살아날 길이 있다”며 재판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호소했다.

전남도와 나주시, 지방의원 등도 재판부에 건의서를 내는 등 화인코리아의 회생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1965년 금성축산으로 시작해 국내 대표적 닭·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2003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부도를 낸 뒤 회회·법정관리 등을 거쳤다. 지난해 말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가 폐지됐고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주요 담보권자인 사조그룹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회생개시 신청이 기각됐다.

식품 대기업인 사조그룹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 캠페인도 참여했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진우 씨가 회장으로서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기업 8월 체감경기 ‘뚝’

## 420개 기업 대상 조사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8월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매출액 20억원 이상 지역 기업 4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8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업황BSI(기업경기실

사지수)는 80, 9월 업황전망BSI는 83으로 전달과 비교해 각각 4포인트와 5포인트 하락했다.

8월 매출과 생산, 채산성 BSI도 모두 9포인트, 7포인트, 7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등 체감경기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9월 매출, 생산, 채산성 전망BSI도 각각 11포인트, 9포인트, 2포인트 내려갔다.

비제조업의 8월 업황BSI는 81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매출BSI(83)와 채산성 BSI(82) 모두 4포인트 내려갔다.

9월 업황전망BSI(85)를 비롯해 매출(91), 채산성(84) 전망BSI는 각각 2포인트, 7포인트, 1포인트 상승하는 등 비제조업의 전망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20.3%), 불확실한 경제상황(20.2%), 내수부진(24.5%), 환율(7.2%),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6.4%), 계절적 요인(5.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고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 줄었다

## 전년에 비해 3.9% 감소

물가가 크게 올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만800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월 279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6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4%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전년에 비해 3.9% 줄어든 월 231만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전년에 비해 6%나 줄어든 231만3000원에 불과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명목임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제로는 임금 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 광천터미널에 유·스퀘어사우나 개장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사우나 시설이 들어섰다.

유·스퀘어는 30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에 872㎡(262평) 규모의 유·스퀘어사우나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우나는 터미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유·스퀘어사우나는 타 지역에서 광주·전남으로 출장 온 직장인들을 위해 인터넷이 가능한 휴게실과 2층 침대(남자 40개, 여자 16개)가 구비된 수면실이 특징이다. 또 피부습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갖춰져 있다. 요금은 성인기준 5000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하나금융, 여수 세계롤러스피드선수권 지원



김종열 하나금융그룹 사장이 ‘2011 여수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 대회관계자와 한국 롤러스케이팅 간판스타인 유호숙 선수 등과 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베르토 마로타 국제스피드위원회 회장, 김종열 하나금융그룹 사장, 유호숙 천주시청소속 선수, 키멜로 피니구아 국제스피드위원회 위원, 제이미 카발 주한콜롬비아 대사.

하나금융그룹(사장 김종열)이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는 ‘2011 여수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후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한롤러경기연맹을 공식 후원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은 국제대회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자 후원하게 됐다.

김종열 사장은 지난 29일 여수 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롤러스포츠는 300만이 넘는 동호인 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여전히 비인기종목”이라며 “하나금융은 소외계층과의 균형적인 발

전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은 물론 롤러스포츠 같은 비인기종목에 지원을 통해 스포츠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제롤러경기연맹과 국제스피드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롤러경기연맹과 여수가 주관하며 롤러스포츠 종목 강대국인 콜롬비아를 비롯, 41개국 800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해 1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2009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종합우승을 노리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